2007 희·망·도·약

'PR공법'으로 해외 진출 나서는 변항룡 '(주)고려 E&C' 대표

"피사의 사탑도 바로 세울수 있어요"

땅 안파고 기울어진 건물 세우는 신공법 개발
전국 20여 다리·건물 보수…중국 등서 큰 관심

불황에 허덕이는 우리나라 건설계에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광주의 중견 기업이 있다. 지난 1999년 변항룡(54) 대표이사가 창립한 '(주)고려 E&C'. 최근 개발한 특허기술로 기우뚱한 건물을 '똑바로' 세우고 있는 것이다. 건물사들은 변 대표 덕에 기운 건물을 철거하고 입주자들에게 막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부담을 덜고 있다.

정해년(丁亥年)을 맞은 변 대표는 이제 세계로 도약하려 한다.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는 이미 '(주)고려 E&C'의 기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맡겨만 준다면 '이탈리아 피사(Pisa)의 사탑(斜塔)'도 똑바로 세워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싶다.

지난 1998년까지 광주 가든백화점을 건축했던 '청전건설'의 현장사무소장으로 근무했던 변 대표. 그는 6년간 현장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울어진 건물을 똑바로 세울 수 있는 획기적인 공법을 구상했다

'PR공법'(Pile Reaction)의 탄생이었다. 'PR공법'은 건물 지하에 콘크리트가 들어있는 강관(鋼管)을 박으면서 이때 생기는 반작용을 이용해 기울어진 건물을 들어올리는 공법. 강관을 박을 때 땅을 파지 않아도 되고 진동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도면〉

'PR공법'의 성공 여부는 강관에 달려있다. 들어올릴 건물의 무게를 계산한 뒤, 이 무게의 2배 가까이 지탱할 수 있는 양의 강관을 땅에 박는다. 강관을 박는 데는 '가압반력' 장치가 이용되는데, 강관은 단단한 암반에 도달하면 땅 속을 더 파고들지 못하고 '가압반력' 장치가 누르는 무게만큼 건물을 들어올린다. 건물은 결국 땅 대신 수백 개의 강관 위에 서있게 되는 것이다.

변 대표는 지난 2000년 'PR공법'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당시 영암군 서호면에서는 수로교(길이 16m·폭 2.5m·높이 2.8m)가 기둥이 무너져 붕괴됐다. 변 대표는 4일 밤낮을 꼬박 새우며 'PR공법'으로 다리를 일으켜 세웠다. 모두 기적 같은 일이라며 신기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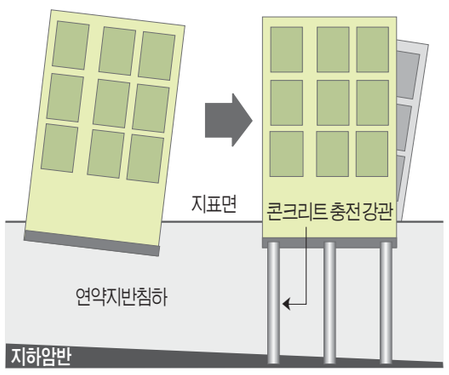
이후 변 대표는 전국 20여 개의 건물과 다리를 '반듯이' 세웠다. 지난 2004년에는 1주일에 1mm씩 침하하고 있던 광주 '동송정역'을 교정시켰고, 4층이 1층보다 550mm나 기울어 있던 목포시 용당동 M빌딩도 일으켜 세웠다.

2007년, 변 대표의 기술은 세계로 뻗어나간다. 중국 무한(武漢)대학교와 하얼빈 임업대학교, 교통성 등을 돌며 'PR공법'을 강의한다. 난징(南京)의 기울어진 교량과 내몽골자치구의 무너지기 직전인 탑도 바로 세워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변항룡(55) 대표이사는 "'피사의 사탑'도 맡겨만 준다면 바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며 "전 세계에 'PR공법'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 'PR공법'의 원리



'(주)고려 E&C' 변항룡 대표이사가 지반침하 현상으로 기울어진 건물을 바로 세울 수 있는 'PR공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순진한 성폭행범

"용서해 달라" 쪽지 보냈다 덜미

광주 북부경찰은 5일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을 한 반모(31·광주시 북구 풍향동)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강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반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골목에서 이모(여·29)씨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승용차에서 키스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 이씨가 혼자 약 5m 떨어진 집으로 들어가자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1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반씨는 범행 뒤 2차례에 걸쳐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용서한다면 답장을 남겨달라"고 적은 A4용지 절반 크기의 종이를 이씨의 집 출입문 틈새 사이에 끼워놓은 뒤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신고를 받고 매복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광주시청앞 FTA저지 집회 불허

경찰, 병력 배치 기습 야적시위 대비

광주 서부경찰은 "한미 FTA저지 광주·전남 운동본부와 전국 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 연맹이 '오는 6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겠다'고 집회 신청을 했으나 이를 불허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한미 FTA저지 운동을 벌인 각 단체들이 지난해 11월 광주시청 청사를 파손한 데 이어 지난달 광주시청 앞 기습 야적시위 등을 벌인 점을 감안, 집회를 불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광주시청 주변에 5개 중대 이상의 병력을 배치, 기습 야적시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를 불허함에 따라 광주시청 주변을 원천 봉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농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청 앞 건너편인 광주지법 등기국 인도로 집회 신고를 냈지만, 경찰이 단지 농산물 등 불법적인 야적이 예상된다는 추측만으로 집회를 불허했다"면서 "경찰과 행정·의회 등이 동원된 입체적인 탄압이 가해져도 광주시의 손배소 철회와 한미 FTA를 중단하지 않으면 농산물 야적시위를 수시로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순천 FTA저지 집회 무산

5일 순천시청 앞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저지 농기계 순회 선전전 및 농민 결의대회가 경찰의 원천 봉쇄로 무산됐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소속 농민 100여명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순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지만 경찰이 불법 집회로 간주, 원천 봉쇄에 나서면서 집회를 포기하고 기자회견으로 대체했다.

농민들은 트랙터 10대와 트럭 10여대를 시청 앞 광장 주변에 놓아 두는 것으로 FTA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가로수 가지치기 광주 남구청 직원들이 5일 남구 대남로(백운지구대 앞~남광교)에서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적절한 전지로 가로수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운전시 시야를 막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아들 투신 원인 밝혀달라"
대통령에 탄원서 발송

투신 자살한 중학생 아들의 자살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교육 당국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한 아버지가 끝내 대통령에게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발송했다.

임영순씨(50·순천시 용당동)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아들의 학교장과 순천교육장, 교육부장관에게 진상 규명을 촉구했으나 모두 아무일 없었다는 회신 뿐이었다"며 "고민 끝에 대통령님에게 하소연할 수 밖에 없어 탄원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5월 순천 S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아들이 16층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것을 직접 본 후 학교와 관할 시 교육청에 탄원을 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자 직접 조사에 나섰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체포

서울 서부 지검은 5일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 2001년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이 골드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함께 신상식 현대캐피탈 감사(금감원 전 광주지원장)도 같은 혐의로 이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경찰청서 4명 총경 된다

경찰청 승진자 87명 발표

경찰청은 5일 전남경찰청 박석일 홍보관(44·경찰대 3기)을 총경으로 승진시키는 등 경정 87명을 총경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총경 승진자는 박석일 홍보관을 비롯한 ▲양성진(44·경찰대 1기) 정보 2계장 ▲안병호 (51·간부후보 35기) 생활안전계장 ▲ 김수율 (53·순경출신) 수사 2계장 등 4명이다.

경찰청은 이번 인사에서 현장 근무자들을 우대했다고 설명했다.

승진자 87명 중 비간부 출신 경찰관은 24명(28%)이며, 경찰은 비간부 출신에게 총경 승진 인원의 20%를 할당하는 제도를 실시중이다.

하지만, 올해 총경 승진자가 지난해 66명에 비해 21명 늘어난 87명이었지만, 광주·전남지역 승진자는 지난해와 같은 4명에 불과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퇴직수당 더 돌려달라"
퇴직공무원 2만여명 소송

퇴직공무원 2만여명이 최근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공무원 퇴직수당(퇴직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모씨 등 공무원 1만여명이 작년 10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수당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20여차례에 걸쳐 2만2천여명의 퇴직공무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김우중 회장님 방 빼 주세요"
힐튼호텔 소송 제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5년간 장기 임대중인 서울 힐튼호텔 23층 펜트하우스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호텔측이 제기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 소유주인 싱가포르계 투자전문회사 ㈜씨디엘호텔코리아는 김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 소장에서 "대우개발이 힐튼호텔을 소유했던 1999년 김 전 회장에게 힐튼호텔 23층을 25년 간 임대하기로 계약했는데 이 계약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체결됐고 불공정거래여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씨디엘측은 "23층은 힐튼호텔 중 가장 전망이 뛰어난 곳이고 면적이 900㎡ 이상인데도 하루 임대료가 328원에 불과해 정상적 수준보다 턱없이 낮고, 김씨가 무상에 가까운 임대료만 받고 25년을 임대했다면 이는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여서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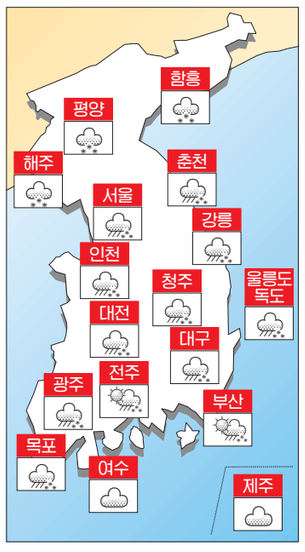
小寒 추위

눈 또는 비가 오다가 오후 늦게부터 눈이 오겠다.

1월 6일 (음 11월 18일)

◇전국날씨

광 주	눈/비	1~ 3℃
목 포	눈/비	2~ 4℃
여 수	흐림	4~ 5℃
완 도	눈/비	2~ 5℃
구 례	눈/비	-1~ 3℃
해 남	눈/비	-1~ 4℃
장 흥	눈/비	-1~ 4℃
고 흥	흐림	1~ 4℃
순 천	눈/비	-1~ 3℃
영 광	눈/비	1~ 3℃
진 도	눈/비	0~ 4℃
전 주	눈/비	1~ 3℃
남 원	눈/비	-2~ 3℃
정 읍	눈/비	0~ 3℃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3.0~5.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3.0~5.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2.0~4.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2.0~5.0m

목 포 밀물 03:42 16:28 썰물 09:02 21:43
여 수 밀물 11:02 23:02 썰물 04:26 17:07

▲해뜸 07:41 ▲해짐 17:35 ▲달뜸 20:14 ▲달짐 09:3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7(일)	8(월)	9(화)	10(수)	11(목)	12(금)
날 씨						
최저/최고	-4/1	-6/2	-6/3	-3/4	-4/2	-5/3

진위 논란 이중섭·박수근 그림
검찰, 2,600점 재감정 의뢰키로

검찰이 이중섭·박수근 화백의 위작(僞作)으로 의심되는 그림 2천600여점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전면 재감정을 의뢰키로했다.

검찰은 2005년 10월 이중섭·박수근 화백 그림과 관련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처리하면서 두 화백 그림 58점에 대해 "위작이 확실시된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엔 당시 감정을 마친 58점 외에 압수된 2천600여점 전체 그림의 진위를 판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5일 "검찰이 압수한 이중섭·박수근 화백의 그림 가운데 진본이 섞여 있을지 몰라 전체 그림을 외부 기관에 의뢰해 진위를 판단한 뒤 위작 주체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재작년 수사에서 김용수 한국고서연구회 명예회장측이 보유한 두 화백의 그림 2천740점 가운데 58점을 골라 서울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맡겼었다.

두 기관은 종이 탄소연대 측정과 안목·필적 감정을 거쳐 58점 모두를 위작으로 판단했고 검찰도 이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위작 판단 부분 수사를 일단락짓고 누가 위작을 유통시켰는지에 수사력을 모아왔다.

검찰은 약 2개월에 걸친 재감정 작업이 마무리되고 감정 결과 위작으로 판명되는 그림은 모두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이들 압수 그림들을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보관해왔다. /연합뉴스

아내 겁 주려다 집 홀랑 태워

쌍나팔

○…40대 남편이 술을 자주 마시는 아내에게 겁을 주려고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 안에 던졌다가 집을 전부 태워 현주건조물에의 방화 혐의로 경찰에 입건.

○…5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택시운전사인 정모(45)씨는 이날 새벽 4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삼각동 자신의 원룸에서 아내 최모(여·37)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 안 침대에 던졌는데, 불이 커져 원룸 10평을 전부 태워 약 1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는 것.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36개월 된 아이 혼자만 두고 아내가 밤늦게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러 가 버릇을 고치려는 생각이었다"면서 "불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고 후회.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